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하루하루 실행 과제

JAS(제이에이에스) | 박초아 과장

글 안유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센터 사내기자 사진 김재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JAS 박초아 과장은 현장과 부단히 소통할수록 노동자가 건강한 일터,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가 완성된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마주한다.

세밀한 관찰로 현장을 살펴라!

JAS는 제주항공 자회사로 2018년 설립해 제주항공을 포함해 춘추항공, 사천항공, 타이거에어 타이완, 홍콩익스프레스 등의 외항사에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현재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광주, 무안 등 총 8개 공항의 지점에서 980여 명의 노동자가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 중이다.

“항공기 탑승 수속과 발권을 비롯해 출발·도착 서비스, 항공기 청소·정비 및 급유 등 그야말로 지상에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까다로운 만큼 노동자들은 여러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또 같은 작업일 지라도 공항별 공정에 차이가 있어 중앙부서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앙의 일률적 통제와 지침으로는 실효성 높은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 박초아 과장의 설명이다. 그만큼 공항별, 업무별 노동자의 의견을 취합하는 채널이 필수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 구심점이 된다. 각 지점의 노동자 대표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담당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 방침은 노동자에게 신속히 공유된다. 구성원 누구나 정신적·신체적 위험성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안전·위험 신고제도 또한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창구다.

“익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매우 다양한 의견이 수집되고 있는데요. 사소한 의견도 주의 깊게 살펴며 관련 상황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안전보건활동의 핵심은 ‘세밀한 관찰’이라고 덧붙이는 박초아 과장. 노동자의 인식 너머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기 위해 그의 하루는 늘 분주하다.

JUair

L22

JUNE 2024 VOL.434

L23

JEJUair

빠른 발권을 원하신다면 셀프 체크인을 이용하세요 | Please Use Self Check





이달의 한 마디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현장과 소통하며 매일 성장하는
보건관리자를 꿈꿉니다”**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라

JAS의 안전보건활동은 노동자의 참여를 이끄는 데 집중한다. 이론 교육뿐 아니라 공항 내 유관 부서들의 협조를 통한 모의 훈련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노동자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CPR 교육을 개설해 노동자들이 응급처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교육이죠.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득의 기회를 높이는 게 JAS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 고취된 안전보건의식이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 또한 박초아 과장이 속한 JAS 산업안전보건파트의 역할이다. JAS 산업안전보건파트는 안전보건 의식이 부족한 부문을 찾아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기업인 제주항공과 협업해 ‘안전보건 대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전사 현장의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았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관련 개선사항이 많이 나와 현재까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모든 화학물질을 확인하느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육체적으로 꽤 힘들었지만, 질병·질한 발생 전 작업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앞섭니다.”

육외활동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 특성상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예방 활동도 박초아 과장이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다. JAS는 매년 대표이사 주재 아래 이상기온 시 건강관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열·한랭 질환 대비 물품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활동 우수사원 표창을 통해 전사적 안전보건문화를 높여 가고 있다.

보건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위험성평가, 노동자의 참여가 높은 안전보건 캠페인 등 JAS의 탄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JAS를 한국공항공사 선정 안전관리 우수사례 지상조업사에 오르게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파트 일원으로 박초아 과장의 자긍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박초아 과장은 이 자긍심이 현장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득의 기회를 높이는 게 JAS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아직은 어렵고 명확하지 않아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노동자에게 법규범만을 강조하다 보면 안전보건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고요.”

업무적으로 어려움에 맞닥트릴 때 박초아 과장은 외부 세미나 및 교육에 참석하며 지식의 질을 향상하려고 노력한다. 타사 동종업계의 안전·보건관리자와 소통 또한 안전보건활동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안전에는 경쟁도 정답도 없다’는 공통된 마음으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슈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공유하다 보면 상호 간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다.

“무사고, 무재해가 안전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의 안전보건활동은 없다는 믿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살피며, 이를 배움으로 채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며 매일 성장하는 보건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